

# 마침내 세계정상 오른 서틀콕 천재소녀...미래는 더 밝다

‘96년 방수현 이후 27년 만 전영오픈 女단식 우승  
선배들 꺾은 서틀콕 신동, 세계 최강자들도 눌러

한국 배드민턴 여자 단식 간판 안세영(21)이 124년 역사의 최고 권위 대회인 전영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21세에 이미 세계 정상에 오른 안세영이기에 앞으로 더 많은 기회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여자 단식 세계 2위 안세영은 19일(한국시간) 영국 버밍엄에서 열린 2023 전영오픈배드민턴선수권대회 여자 단식 결승에서 세계 4위 천위페이(중국)에 2-1(21-17 10-21 21-19)로 이겼다.

지난해 이 대회 준우승에 그쳤던 안세영은 1년 만의 재도전 끝에 우승에 성공했다. 아울러 안세영은 한국 선수로는 1996년 방수현 이후 27년 만에 전영오픈 우승이라는 위업을 달성했다.

2002년생인 안세영은 어려서부터 서틀콕 신동으로 불렸다. 2015년부터 주니어 국가대표로 활약한 안세영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

년 연속 요넥스 코리아 주니어오픈 여자단식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2016년에는 단식과 복식 2종목을 석권했다.

안세영은 2016년 주니어 4개 대회에 출전해 단식은 모두 우승하고 복식에서도 우승 2회와 준우승 2회를 차지할 정도로 탁월한 기량을 선보였다.

2017년 중학교 3학년이었던 안세영은 국가대표 선발전에 출전해 현역 국가대표 선수들까지 모조리 꺾고 7전 전승을 기록하며 국가대표로 발탁돼 배드민턴계를 놀라게 했다. 중학생이 선발전을 거쳐 국가대표가 된 것은 안세영이 처음이었다. 이때부터 안세영에게 배드민턴 천재소녀라는 별명이 따라붙었다.

국가대표가 된 안세영은 2018년부터 각종 국제 대회에서 성적을 내며 성인 무대에 이름을 알렸다. 2019년부터는 국제배드민턴연맹 월드 투어 대회에서 우승을 하기 시작했다. 프

랑스오픈에서 2016 리우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카롤리나 마린(스페인)을 꺾고 우승한 데 이어 코리아 마스터스 대회에서는 대표팀 선배 성지현을 누르고 우승했다.

안세영은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세계 최강자들과 승부를 벌이기 시작했다. 안세영은 월드투어 메이저 대회와 2020 도쿄올림픽 등에서 야마구치 아카네(일본), 천위페이(중국), 허빙자오(중국), 타이쯔잉(대만) 등 세계 최강자들을 상대하면서 경험을 쌓았다.

거듭된 패배를 통해 더 강해진 안세영은 올해 들어 한 단계 발전했다. 안세영은 올해 열린 5개 대회에서 모두 결승전에 올랐다.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준우승, 인도오픈 우승, 인도네시아오픈 우승, 독일오픈 준우승에 이어 최고 권위의 전영오픈에서 대망의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우승은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안세영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줬다. 안세영은 본인도 이번 우승의 의미를 알고 있다. 안세영은 결승전 승리 후 인터뷰에서 “제 커리어에 한 획이 그어졌다. 제 자신이 자랑스럽다”며 “또 한 단계 성장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든



전영오픈 여자 단식 우승한 안세영.

다”고 말했다.  
한층 성장한 안세영은 올해 항저우 아시안 게임과 내년 파리 올림픽에서도 유력한 금메

달 기대주가 될 전망이다.

뉴스

## 전남 레슬링, 전국대회서 금 6개·은 3개·동 11개 수확

전남 레슬링팀이 전국대회에서 금메달 6개, 은메달 3개, 동메달 11개를 수확했다.

전남도체육회는 전남 체육중·고와 함평중·학다리고 등 레슬링팀이 강원도 철원에서 열린 제41회 회장기 전국레슬링대회에서 금메달 6개, 은메달 3개, 동메달 11개를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남체고 김국진은 자유형97kg급에 출전해 결승에서 학교 후배인 허현찬을 제압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허현찬도 은메달을 획득해 전남체고는 자유형 97kg급 최강자로 떠올랐다.

또 이승현(그레코로만형 55kg급), 정승원(그레코로만형 67kg급), 이윤수(자유형 70kg급), 김태빈(자유형 125kg급)에서 동메달을 수확했다.

전남체중은 이다훈(그레코로만형 80kg급)과 채진호(그레코로만형 60kg급), 김예찬(그레코로만형 65kg급), 김예찬(자유형 65kg급), 박태윤(자유형 92kg급)이 각각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또 김건(그레코로만형 42kg급), 이은수(그레



코로만형 55kg급), 이현군(자유형 48kg급), 채진호(자유형 60kg급)이 동메달을 추가해 전남체중은 이번대회 금메달 5개, 동메달 4개를 획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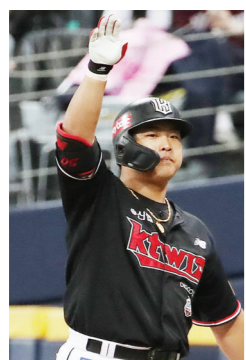
함평중은 정현우(그레코로만형 51kg급), 나준우(그레코로만형 92kg급)가 동메달, 함평학다리고 나중혁(그레코로만형 130kg급)이 은메달, 함평군레슬링협회 김가빈(그레코로만형 63kg

급)과 나명길(그레코로만형 72kg급)이 각각 은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했다.

도체육회 관계자는 “레슬링팀이 전국대회에서 많은 메달을 수확해 오는 10월 전남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겠다”며 “남은 기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더 많은 메달을 수확하겠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 KT 강백호, 올해 우익수로 돌아간다... “멀리 봐야”



프로야구 KT 위즈의 강백호가 외야수로 돌아갈 전망이다.

이강철 KT 감독은 20일 수원 KT위즈파크에서 벌어지는 두산 베어스와의 2023 신한은행 쏠 KBO 시범경기를 앞두고 “강백호에게도 자리를 줘야한다. 올해 우익수를 맡길까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강백호는 프로 데뷔 초창기에는 외야수로 뛰었다. 프로 데뷔 첫 시즌이었던 2018년 좌익수로 68경기에, 2019년에는 우익수로 72경기에 선발 출전했다.

하지만 2020년부터는 풀포 1루수로 뛰었다. 2020년 1루수로 선발 출전한 경기는 121경기였고, 우익수로로는 3경기에만 선발로 나섰다. 2021년에도 선발 1루수로 나선 경기가 128경기인 반면 우익수로 선발 출전한 경기는 4경기에 불과했다.

지난해 박병호가 KT로 이적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박병호가 주전 1루수로 뛰면서 강백호는 지명타자로 뛰는 일이 많았다. 2022시즌 강백호는 1루수로 13경기, 지명타자로 47경기를 선발 출전했다.

아직 KT 1루에는 박병호가 건재한데, 아직 20대 초반인 강백호를 계속 지명타자로 기용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에 이 감독은 올해 그를 우익수로 기용하기로 했다.

뉴스

## 공격하는 수비수 김민재-아라우호, 실력 겨룬다

한국, 우루과이와 28일 서울서 A매치 평가전

한국과 우루과이를 대표하는 수비수 김민재(나폴리)와 로날드 아라우호(바르셀로나)가 상암벌에서 만나 실력을 겨룬다. 수비수이면서도 공격력까지 겸비한 두 선수가 이번 승부에서 어떤 결과를 받아들지 주목된다.

김민재 소속팀 나폴리는 20일(한국시간) 이탈리아 토리노의 올림피코 그란데 토리노에서 열린 토리노와 2022-23 이탈리아 세리아A 원정경기에서 4-0 대승을 거뒀다.

나폴리는 23승 2무 2패 승점 71로 2위 라치오(15승 7무 5패, 승점 52)와 승점차를 19로 유지했다. 나폴리는 승점 14만 추가해도 33년 만에 리그 정상에 오르게 된다.

이날 경기에서는 김민재의 공격 능력이 눈길을 끌었다. 김민재는 1-0으로 앞선 전반 34분 중앙선 근처에서 공을 따낸 뒤 왼쪽 측면을 따라 공을 몰고 질주했다. 김민재의 속도에 압도당한 토리노 수비수들은 김민재를 따라잡지 못했다.

김민재는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침투한 뒤 크로스를 올렸다. 크로스는 상대 수비에 걸렸지만 이어지는 상황에서 동료 크바라츠헨리아가 페널티킥을 얻어내 성공시켰다.

김민재는 지난 16일 프랑크푸르트(독일)와의 2022-2023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에서 과감한 드리블 돌파로 관중을 놀라게 한 데 이어 이번에도 만만찮은 공격력을 보여줬다.

우루과이 국가대표로 한국 방문을 앞둔 로날드 아라우호 역시 수비수임에도 공격력을 과시했다.

아라우호 소속팀 바르셀로나는 20일(한국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캄 노우에서 열린 레알 마드리드와 2022-2023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홈경기에서 2-1로 이겼다.

바르셀로나는 남은 12경기에서 승점 25만 추가해도 자력으로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우승을 차지하게 된다. 승점 25는 12경기 가운데 8승 1무만 거둬도 되는 수치다.

아라우호는 이날 경기에서 천당과 지옥을 오갔다. 0-0으로 맞선 전반 9분 수비 상황에서 레알 마드리드 공격수 비니시우스가 크로스를 올렸는데 아라우호가 여기에 머리를 갖다 댔다가 자책골로 이어졌다.

역적이 될 뻔했던 아라우호는 본업이 아닌 공격에서 속죄를 했다. 수비수임에도 문전까지 침투해 골을 노리던 아라우호는 0-1로 뒤진 전반 45분 상대 진영 측면에서 공을 따낸 뒤 크로스를 올렸다. 문전 혼전 끝에 동료 세르지 로베르토가 동점골을 터뜨렸다.

아라우호는 수비에서는 상대 비니시우스에게 수차례 돌파를 허용하며 부진했지만 팀은 프랑크 케시에의 후반 추가 시간 역전 결승골에 힘입어 승리했다.

이처럼 유럽 무대에서 활약한 김민재와 아라우호는 이제 무대를 한국으로 옮겨 기량을 겨룬다.

두 선수는 오는 28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A매치 평가전을 치른다. 2022 카타르월드컵에서는 맞대결이 불발됐다. 김민재는 우루과이와 조별리그 첫 경기에 출전했지만 아라우호는 허벅지 부상 여파로 경기에 나서지 못했다.



## 셀틱 이적 엇갈린 오현규·조규성...골 성적도 '희비'

오현규, 결승골로 팀에 승리 안겨  
조규성, 골 침묵...소속팀도 8위 추락

스코틀랜드 프로축구 셀틱 이적을 놓고 운명이 엇갈린 오현규(22)와 조규성(25)이 리그 초반 성적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오현규는 3골을 터뜨리며 순조롭게 적응 중인 반면 조규성은 K리그 4경기에서 페널티킥 1골을 그치고 있고 팀도 부진에 빠졌다.

오현규는 지난 19일(한국시간) 영국 글래스고 셀틱파크에서 열린 2022~2023시즌 스코틀랜드 프리미어리그(SPL) 29라운드 하이버니언과의 홈 경기에 교체로 출전해 후반 36분 다이빙 헤딩 결승골로 셀틱의 3-1 승리에 앞장섰다.

지난 1월 프로축구 K리그1 수원 삼성에서 셀틱으로 이적한 오현규는 지난 5일 세인트미켈(셀틱 5-1 승)과의 경기에서 페널티킥으로 리그 데뷔골을 넣은 뒤 2경기 만에 2호골을 추가했다.

스코틀랜드 컵대회 1골을 포함하면 오현규는 공식전 3골을 기록 중이다.

이에 힘입어 오현규는 위트겐 클린스만 새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3월 대표팀 소집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2022 카타

르월드컵에서 등번호 없는 27번째 예비 선수로 참가했던 오현규는 실움을 떨치고 정식으로 클린스만호에 승선했다.

반면 고심 끝에 셀틱으로 가지 않은 조규성은 소속팀 전북에서 눈에 띄는 활약을 아직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조규성은 K리그1 개막 후 4경기에서 전북의 주축 공격수로 뛰고 있지만 1득점에 그치고 있다. 1골 역시 페널티킥이다. 조규성은 지난 5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동료 아마노 준이 얻어낸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며 시즌 1호골을 신고했다.

조규성이 이끄는 전북은 시즌 초반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전북은 개막전에서 라이벌 울산현대에 패한 데 이어 2라운드 수원삼성전에서 비겼다. 전북은 3라운드에 승격팀 광주FC에 이기는 했지만 지난 19일 4라운드에서 대구FC 원정에서 0-2로 졌다. 조규성은 대구전에서 팀 내 3번째로 낮은 평점인 6.2점을 받았다.

그 결과 지난해 리그 2위를 차지한 전북은 20일 현재 K리그1 12개팀 중 8위로 처졌다. 1위 울산과 승점 차는 벌써 8점까지 벌어졌다.

이처럼 셀틱 이적 여부를 기점으로 최근 행보가 엇갈리고 있는 조규성과 오현규는 나란히 클린스만호 소집에 응한다.

## ‘압도적 존재감’ 김연경, 6R MVP...이번 시즌 4번째

‘배구 여제’ 김연경(흥국생명)이 이번 시즌 네 번째 라운드 최우수선수(MVP)를 차지했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20일 “김연경과 한 선수(대한항공)가 도드람 2022-2023 V-리그 MVP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김연경은 기자단 투표 31표 중 총 14표를 얻어 6표를 받은 엘리자벳(KGC인삼공사)을 제치고 수상했다.

김연경은 이번 시즌 1, 3, 5라운드 이어 6라운드에서도 MVP를 거머쥐며 ‘최고 선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했다.

김연경은 6라운드 동안 공격 성공률 42.86%로 부문 2위를 기록했다. 시간차 공격 2위, 킷오픈 5위 등 뛰어난 활약으로 흥국생명을 정규



리그 1위로 이끌었다.

남자부에서는 한 선수가 기자단 투표 31표 중 11표를 획득, 팀 동료 링컨(7표)을 밀어냈다.

한선수는 6라운드 동안 세트당 11.15개의 세트를 성공해 부문 1위에 오르는 등 대한항공의 6라운드 5승과 정규리그 1위에 힘을 보탤다.

한선수는 2라운드에 이어 이번 시즌 두 번째 MVP 영광을 안았다.